

금(金)결의 님과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

김현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님이시여, 당신은 백 번(百番)이나 단련(鍛鍊)한 금(金)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발에 복(福)의 씨를 뿌리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여.

-한용운, 〈찬송〉-

1. '님'을 향한 열정과 열려져 있는 '님'의 의미

한용운 시의 매력은, 님에 대한 그의 노래들이 우리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열정적인 송가라는 점에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감탄문과 호격의 수사법은 청자로 하여금 강렬한 시의 전언에 집중하게 하는 동시에, 대상을 향한 다른 잡념을 배제시켜 대상을 명징하게 부각시킨다. 그 열정은 언제나 정결하게 응축된 견고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상을 향한 넘칠 듯한 격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열정에는 굳어디기가 없으며 오로지 사랑의 순수 정점만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만해의 시는 가슴저리게 하는 연시(戀詩)인 동시에 사유의 폭과 깊이를 지닌 시일 수 있으며, 또한 종교적인 의미에만 갇히지 않은 열렬한 사랑의 시일 수 있다.

시 〈찬송〉은 제목 그대로 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찬송의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만해 시의 중심어인 '님'은 이 시에서도 반복되지만 역시 그 명료한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만해의 시집 『님의 침묵』을 형성하는 시학의 중심이 '님'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뇌에 빠진 중생에게 님은 자비로운 보살이자 부처이며,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님은 소중한 연인이고, 절망에 빠진 민중에게 님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메시아적 존재이자 당대의 민족적 현실에서 님은 곧 조국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내포된 의미를 고려하면서 시를 읽을 때 한용운의 시는 차츰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시인이 일제에 항거한 민족 지사이자 승려였다는 텍스트 외적인 맥락을 단순 대입하여서 식민지 민족을 구해 주는 영웅이나 종교적 대상으로만 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시의 묘미를 떨어뜨리고 또 시의 의미

를 경직시킨다. 만해의 시에서의 '님'은 침묵과 비밀에 싸여 있거나 숨어 있으며 현실에는 늘 부재하는 존재로서,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야 하는 신념의 존재로 그 의미가 열려 있다. 이렇듯 만해 시의 '님'의 의미망은 열려져 있기에, 독자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 많은 의미를 채워 넣고 싶어지게 된다.

이 시에서도 님은 연인이라는 개인적 의미의 님을 넘어서서 다의성을 지닌다. '님'은 순수 정점을 상징하는 개인적 사랑의 대상에서 '거지의 거친 발에 복의 씨를 뿌리'고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인 사회적 님으로 확대된다. 이 님은 이상적인 대상이고 진리이며, 애인이다. 그것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좀 더 크고 보편적인,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양상을 포함하는 다의적 존재로서의 님이다.

시 <찬송>은 1연의 구문이 2, 3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읽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며 반복되는 형태의 주술성을 통해 찬송의 열정을 고조시킨다. 각 연의 1행에서는 님의 성격을 규정하고, 2행에서는 축원을 올린다. 3행에서는 돈호법과 감탄문을 사용하여 님을 열정적으로 찬송하는데, 각 2행의 종결어미 '소서'와 더불어 호격조사 '-이여'의 반복적인 사용은 화자의 어조를 열정과 찬미의 숨결 속에 강력히 살아 숨쉬게 한다. 각 연의 종결어미는 '-(ㅁ)니다' '-(ㅁ)소서' '-이여'로 되풀이 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어조와 형식의 반복은 님에 대한 화자의 한결같은 송축을 강조하고 있다. 감탄형 종결어미 '-소서'나 호격조사 '-이여'의 외침은 다소 과장적인 어투이고 구식 표현이지만 한용운의 시에서는 고풍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려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를 빛나게 한다. 어조와 종결어미, 그리고 이미지가 결합되어 집중 구조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간절한 송가의 분위기를 복돋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연의 2행들은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님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다. 1연에서 님은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의 주체가 되는 님이다. 이 때 님은 청송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2연에서 님은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의 주체로 평화와 복락을 대중에게 베푸는 존재가 되며, 3연에 이르면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높이를 지닌 주체적인 존재로 변주된다. 연을 거듭할수록 님은 수동적 존재에서 점차 능동적인 존재로 전환되어가면서 수직적인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각 연의 1행, 2행 3행은 다음과 같이 묶여질 수 있다.

각 1행 : 평서	님이여, 당신은 --(ㅂ)니다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의가 무거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아십니다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각 2행 : 송축	님이여, --(ㅂ)소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각 3행 : 찬양	님이여, 사람이여, --이여	아침별의 첫걸음이여 옛오동의 숨은 소리여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여

2. 약자(弱者)의 가슴에 비치는 빛의 평화

시인이 그리는 님의 궁극적인 이미지는 빛과 사랑과 은은함이다. 이는 ‘금결’ ‘봄과 평화와 광명’ ‘아침 별’ ‘얼음 바다에 봄바람’ 등 밝고 따뜻한 빛과 온기를 지닌, 그러면서 자비와 사랑, 연대(連帶)의 감정을 지닌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님은 정의를 알고 욕망의 무상함을 깨달은 인격적 존재이기도 하다. 님을 구현하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견고하고 빛나는 보석의 이미지를 지닌 님이다. 안정되고 단단한 사물을 향하는 시인의 지향의식은 견고성과 부동성에서 생의 의지처를 발견한다. 인간의 유약한 육체와 생로병사의 고단한 삶은 모두 시간에 잠재된 무서운 파괴력에 의해 무상한 것이 되고 만다. 시인은 이렇게 소멸로 치달을 뿐인 시간의 무상함에 저항하며 견고하고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점점 더 단단한 것을 향하는 시인의 꿈은 금속의 세계로 집중된다. 소멸을 소멸 자체로 끝내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지는 쉽게 스러지지 않는 사물과 단단하고 빛나는 대상으로 향한다. 그래서 님은 ‘백 번이나 단련한’ 강하고 아름다운 금결에 비유되며, 시간이 지나면 노후해 결국은 썩기 마련인 ‘뽕나무 뿌리’도 영원성을 지닌 보석인 ‘산호’로 변용된다. 금결은 ‘결’이 함축하고 있듯 세월의 쌓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금결은 백 번이나 용광로에 들어가 다듬어지고 단련된 금속이다. 이러한 거듭되는 정제의 과정은 사랑의 감정에 오래 실릴 감상성이나 비릿함을 배제하여 가장 정결하고 응축된 요소만을 남긴다. ‘금결’의 ‘결’은 또한 육체와 관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금’이라는 금속의 무생명성과 ‘결’의 생명성이 결

합되어 육체와 생명이 모두 포괄된 '님'은 단순히 관념적인 님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당신으로서의 님이 되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에 보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솔라르의 말처럼, 보석은 곧 물질과 빛의 대립이 없어지는 지점의 사물로서 무한성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은 영원한 미와 진리의 세계를 상징하면서 힘과 항구성의 의미를 지닌다. 결코 그 빛을 잃지 않는 광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적극적 지향성을 지닌 황금은 불멸의 이미지이다. 님의 실체를 빛나게 하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현실 세계에 부유하는 연약한 대상들을 투명하고 단단한 보석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응결하고 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황금조차 당신이 추구하는 '의(義)'보다는 가볍다고 말함으로써 백 번 이상을 단련했을 님의 의지를 강조한다. 영구적인 금을 '백 번' 정제하고 단련한다는 것은 금을 가장 지고지순하고 영원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는 동시에 님 스스로를 연단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해의 보석은 바로 이러한 단련 끝에 이를 수 있는 정점의 사물이다.

둘째, 응축된 빛의 이미지를 지닌 님이다. 시인은 님을 '아침 별의 첫걸음'에 비유한다. 아침 별은 그 날을 시작하는 새로운 빛이자 가장 순수한 빛이다. 이 순간은 아침을 밝히는 시간들 중에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는 수직화된 시간으로 정점을 이룬다. 시인은 어둠을 거두고 아침을 밝히는 눈부신 빛 가운데에서 님의 존재를 느끼며, 그 빛과 더불어 있는 따스한 별으로 님을 예찬한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엄숙한 위력은 곧 님의 존재와

일치되면서 우주적인 상징성을 내포한다. 아침과 봄은 모든 생명있는 것들이 깨어나는 원형적인 시간이다. 밝은 빛과 따듯한 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광명은 이 원형적인 시간성 속에서 흑 사라졌다가도 늘 되살아나는 생명의 원천이자 재생의 중심적인 핵으로 불멸하는 님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셋째, 감각적 영상을 통해 구체화되는 님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 대상인 님은 시 속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인 실존으로 육화(肉化)되어 간다. 님은 '아침 별의 첫걸음'처럼 맑은 빛의 이미지를 지닌 신생의 이미지로 가시화되었듯, '옛 오동의 숨은 소리'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을 현재의 자리로 불러내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환기한다. 흐르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가 버렸으나 잠시 귀를 기울이면 기억 속에서 은은하고 청정한 거문고 가락이 끊임없이 길고 가늘게 들려올 것 같은 존재로서의 님이다. 화자와 님과의 만남이 이미 과거의 일이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지만, 그 헤어짐이 아무리 길어도 언제나 옛 오동의 숨은 소리처럼 늘 님이 내 주변에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각시킨다. 마지막 연에서 님은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라는 비유로 매듭한다. 봄바람에 비유된 님은 그 감미롭고도 부드러운 힘으로 님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약자'의 얼어붙은 마음에 눈물을 뿌려 녹일 수 있는 님, 그는 얼음 바다의 빙산도 녹일 수 있는 힘을 지닌 신뢰의 대상이다. 시인에게 있어 님은 거대하고 냉엄한 현실 세계를 서서히 녹이는 훈풍같은 존재,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아침 별의 첫걸음 (시각적 영상)

관념적 대상으로서의 님 → 옛오동의 숨은 소리 (청각적 심상) → 구체적 실존으로서의 님
 얼음 바다에 봄바람 (촉각적 심상)

3. 재생의 活力, '얼음 바다에 봄바람'

한용운의 시는 시대를 초월해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또 끊임없는 시적 재발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그의 시 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존재 탐구와 더불어, 삶과 죽음, 소멸과 생성 등 대립과 모순을 이루는 가치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우주의 변전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한 시인의 빛나는 통찰에 기인한다. 시인의 상상력은 '불멸'이라는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재생의 모티프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인의 의식 구조는 생성과 죽음을 거쳐 재생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시 〈찬송〉에서도 재생의 이미지는 상상력의 근간 구조가 되고 있다. '뽕나무 뿌리'와 '거친 밭'과 '弱者'가 변형된 죽음의 과정을 거쳐 '천국의 사랑'과 '산호', '복의 씨', '자비의 보살'로 재생의 구조를 이루어 나간 것이 그 예이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고, 거친 밭이 복의 씨를 통해 기름진 밭이 되고, 또 자비의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역겹의 시간이 쌓여야 한다. 이미 죽어버린 오동나무의 옛 숨결이 오늘 다시 살아 소리를 내는 것은 식물의 순환성과 여행하는 시간 속에서 우주의 재현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삶을 넘어 우주적 질서나 진리와 연결된다. 한용운은 생성과 단절, 이별과 죽음을 어떤 한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질서나 구조

의 한 부분으로 파악한다. 시인의 이러한 우주적 상상력은 사물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혀줄 뿐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절망, 이별의 통환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해 거대한 삶의 에너지, 재생의 활력으로 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준다. 이 힘은 한용운 시가 지닌 모순의 극복, 재생의 모티프에서 비롯된다. 재생의 활력은 님이 부재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언젠가 다가올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신념에 가득차게 한다.

억겁의 시간, 생성과 사멸의 우주적 시간을 기다려 재생의 봄을 맞이하려는 화자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차가운 세계 속에서도 님을 통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안정과 순수의 세계를 회복하리라는 희망과 신념을 잃지 않는다.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자세가 그 거대한 얼음 바다를 녹이는 부드럽고 다사로운 봄바람의 님의 힘에 강력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부드러운 것에서 솟아오르는 강한 힘, 그 부드럽고 강한 힘을 지닌 자는 바로 사랑하는 당신, 님인 것이다.

시 〈찬송〉에서 사유의 핵심은 재생의 상징인 ‘얼음 바다에 봄바람’으로 귀결된다. 이는 화자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은 견고한 얼음 바다이다. 고통스럽고 냉엄한 절망의 세계는 님이 부재하는 부정적 현실이다. 화자는 외적으로는 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찬송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얼음 바다와 거지의 거친 밭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화자의 이러한 고통과 열정은 님과의 이별을 이별 그 자체로, 절망을 절망 그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화자의 태도는 무작정 님을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양상이 아니다. 현실을 극복해내는 힘은 화자 자신의 거대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

은 거대한 절망과 고통은 화자로 하여금 빛과 광명과 평화의 존재인 님에 대한 염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사랑과 광명, 천국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 힘은 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더불어, 언젠가는 님이 내게로 와서 복과 사랑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